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1970~1980년대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과 노동자의 생활

A study on the working conditions  
and everyday life of workers in Ulsan chemical  
textile industry in 1970s and 1980s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 한국문화학과  
이경서

1970~1980년대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과 노동자의 생활

지도교수 허영란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이경서

李京敍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전호태



審査委員 이종서



審査委員 허영란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4년 2월

## 1970~1980년대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과 노동자의 생활

이경서

이 논문에서는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을 대표하는 태광산업, 동양나이론, 선경합섬 공장의 건설 과정을 정리하고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조건 및 생활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간 한국 산업화 역사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화학섬유산업 노동자들의 경험을 복원하고 화학섬유 생산 노동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해방 이후부터 천연섬유에 비해 내구성과 활용도가 좋은 화학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화학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섬유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화학섬유산업은 산업 특성상 고도의 기술과 대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입대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화학섬유공장이 건설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대규모 석유화학공단과 정유공장이 조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간접 자본을 활용할 수 있었고 향후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기에도 적합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법인 설립, 공장 건설 승인, 외자 도입 승인 과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진 구성, 기업 간 갈등 중재 과정에도 개입하여 정부의 계획에 부합하는 공장 건설을 유도했다. 민간 기업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울산공장 건설 허가를 얻는 한편 지분 인수와 새로운 사업 구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갔다.

화학섬유의 생산 공정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섬유형태로 만드는 선공정과 용도에 맞게 섬유를 가공하고 선별한 후 포장을 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선공정에서는 공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공채를 통해 대졸 남성이 채용되었다. 반면 후공정일수록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졸 미만의 노동자들이 배치되었다. 후공정 중에서도 보다 더 노동집약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임금이 저렴한 여성노동자에게 배정되었다. 후공정에 배치된 노동자들은 기술을 배워 고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승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각 공정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3조 3교대가 기본이었다.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 역시 휴일의 구분 없이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공장 노동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켰고 정해진 시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매우 뜨거운 열기와 소음, 화학 약품 냄새를 견뎌야 했다. 임금 측면에서도 1980년대 후반까지 전국 제조업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임금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1987년 노동쟁의를 통해 표출되었다.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 미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는 숙면을 취하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웠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 달랐고 인근 공장의 매연과 분진, 공단 내 안전사고로 인해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기숙사에서는 엄격한 생활 규율을 통해 노동 통제가 이루어졌고 남성 노동자의 기숙사 침입과 방 엿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노동자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울산에는 타도시보다 늦게 야간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화학섬유공장의 노동자들은 그것조차 제대로 다니기 힘들었다. 회사의 지원을 받아 다닐 수 있는 야간 고등학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개인의 힘만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했다. 또한 잔업이 잦은 3교대 근무 노동자가 출석 수업에 나가거나 일정한 시간에 방송되는 강의를 청취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배치되는 업무에는 위계가 존재했다. 여성노동자들은 같은 공정 내에서 남성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노동집약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배정되었다. 업무의 차이는 관계의 위계로도 이어졌고 작업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의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참아가며 일해야 했다.

젠더에 따라 노동 경험에 대한 사회적 또는 자기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화학섬유공장에 다니는 남성노동자들에게 공장 작업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공장이 위치한 남구 일대에서는 작업복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외상 취식이 가능했을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공장 노동 경험은 전통적 성별 분업 논리에 의해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인식되었고 여성 스스로도 공장 노동을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섬유공장은 도시의 산업 구조가 남성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가는 지역에서 여성이 대거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이었다. 하지만 화학섬유산업의 특성상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중심 공정에서 소외되었다. 또한 일시적, 보조적 노동력이라는 사회 인식과 공장 노동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자기 인식은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계급의식을 각성해나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자각하기 어려웠던 회사 내 분위기, 퇴근 후 다시 분가로 돌아가 농사일을 돕거나 돌봄 노동을 이어나가야 했던 개인 형편, 도시산업선교회나 학생운동가가 부재했던 지역적 상황도 여성노동자들의 비판의식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의 산업 구조는 완전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었고 여성노동자의 존재와 위치는 더욱 축소되었다. 그 결과 울산지역의 화학섬유공장에서는 타 도시의 경공업 사업장에서 보이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970~80년대 여성노동자의 존재 자체마저도 울산지역 산업화의 역사에서 잊혀졌다.

주요어 : 화학섬유산업, 화섬산업, 산업화, 태광산업, 동양나이론, 선경, 울산지역, 화섬 노동자, 여성노동자, 노동자의 생활

# 《목 차》

I . 머리말 .....	1
II . 화학섬유산업의 육성과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 건설 .....	3
1. 경제개발계획과 화학섬유산업의 육성 .....	3
2.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의 건설 .....	8
III .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 .....	14
1. 울산 화학섬유공장 노동자의 노동 조건 .....	14
2. 울산 화학섬유공장 노동자의 생활 .....	24
IV . 맺음말 .....	30
《참고문헌》 .....	33
ABSTRACT .....	37

## 《표 목 차》

표 1 화학섬유 수요, 공급 변화 추이 .....	7
표 2 울산시 인구변화 추이 .....	12
표 3 울산시 산업 변화와 공업 인구 변화 추이 .....	13
표 4 화학섬유사업장 남성노동자 호봉별 임금표(1990년) .....	22
표 5 화학섬유사업장 여성노동자 호봉별 임금표(1990년) .....	22

## 《그 립 목 차》

그림 1 그림 연도별 화학섬유산업 취업자 수 .....	8
--------------------------------	---



## I. 머리말

섬유는 소재에 따라 크게 면화, 견, 양모와 같은 천연섬유와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과 같이 원료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인조섬유로 구분된다. 인조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물레나 베틀을 사용해 삼베·모시·비단·무명 등의 천연섬유를 생산, 소비해왔다.

전통적인 섬유업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일본인의 주도 하에 근대적인 섬유공업으로 변화했으며 일본의 방직산업 부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의 방직공장은 1930년대 말, 전시체제기에 이르면 대부분 균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했다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황폐해졌다.<sup>1)</sup> 이후 면방직시설은 비교적 빠르게 피해시설이 복구되었고 시설이 확장되면서 1960, 19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960년대에 이르면 천연섬유뿐만 아니라 나일론을 비롯한 각종 화학섬유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화학섬유산업도 성장했다. 우리나라 화학섬유산업은 1959년 8월에 미진화학섬유공업사의 일산 2톤 PVA 섬유공장, 1963년에 한국나이론, 1964년에 한일나일론 공장이 준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2)</sup>

해방 이후 한국의 섬유업에 관한 선행 연구는 면방직업과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축적되어 왔다. 방직공장의 노동 조건과 노동 경험, 노동 운동의 전개와 의의를 밝힌 연구<sup>3)</sup>들이 진행되었으며 구술사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동 경험과 생활, 노동자 정체성 등을 다룬 연구<sup>4)</sup>도 발표되었다. 또한 지역성을 반영한 직물공업 연구도 진행되었으며<sup>5)</sup> 미군정기, 경제개발기, 해방 이후 북한의 방직공업과 관련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sup>6)</sup> 이와 같이 해방 이후 면방직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시기, 공간,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고 구술사를 바탕으로 면방직산업 노동자들의 일상과 생활, 구체적인 노동 경험을 역사화 하면서 질적으로도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화학섬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직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한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 1) 조현민·임상훈, 「한국 면방직업 내부 노동시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經營史學』 90, 한국경영사학회, 2019, 55쪽.
- 2) 한국화섬협회, 『한국화섬협회 50년사 : 1963-2013』, 2013, 12쪽.
- 3) 김상숙, 「지역과 젠더통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 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사회학 박사논문, 2007. ; 장미현, 「1950년대 후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2007. ; 홍석률,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
- 4) 김귀옥, 「1960, 19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 :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이종구 외, 한울아카데미, 2004. ; 김귀옥, 「1960-70년대 의류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의 문화건설과 문화의 성격과 한계」,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이종구 외, 한울아카데미, 2006. ; 이희영,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 광주 전남방직 구술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2·1, 한국산업노동학회, 2008. ; 김상숙,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생활경험 - 1970~1980년대 대구 제직공장의 '기사' - '직수' 팀 노동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9, 한국사회사학회, 2018.
- 5) 김세림, 「1950년대 공주 유구지역의 피난민 정착촌 형성과 직조업」, 『學林』 42, 연세사학연구회, 2018. ; 박현정, 「1950-1960년대 강화 여성의 삶과 노동경험 : 강화지역 직물생산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1·1, 한국구술사학회, 2020.
- 6) 이주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 서문석, 「수출의 확대와 면방직업의 성장」,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2018. ; 서문석, 「美軍政期 綿紡織産業의 發展」, 『經營史學』 97, 한국경영사학회, 2021.

한국 화학섬유산업의 발전과 산업 정책을 다룬 이상철의 연구가 있다.<sup>7)</sup> 이상철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화학섬유산업이 수입대체산업으로 발흥함과 동시에 곧바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는 정부의 선별적 산업육성정책과 금융적 통제가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선별산업육성정책은 화학섬유의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고 개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제조공정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상철의 연구는 정부의 산업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 화학섬유산업의 발전 과정과 후발산업화의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상철의 연구는 국가의 정책적 관점으로만 화학섬유산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이 건설되고 운영되었던 지역의 관점과 노동자들의 경험은 살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구술을 활용해 화학섬유산업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노동운동 참여를 미시적으로 살핀 연구도 있다.<sup>8)</sup> 원영미는 1987년 취업을 위해 울산으로 이주해 울산 남구에 위치한 화학섬유 공장 중 하나인 태광산업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의 생애를 다루었다.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소산업에 비해 노동자 비율이 낮고 임금이 높아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지적하고 화학섬유공장에서의 노동 경험이 이후의 노동조합활동과 지역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했다. 원영미의 연구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노동자의 경험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남성노동자 한 사람의 생애만을 다루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고 특히 같은 사업장 내에 존재했던 여성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화학섬유의 생산이 아닌 소비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정은은 대표적 화학섬유인 나일론 직물이 1950년대에 여름용 여성 옷감으로 유행했던 현상에 주목하고 유행을 지속하게 만든 데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새로운 물건에 대한 관심, 쉬운 손질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한국전쟁을 거치며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욕구가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공급의 부족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sup>9)</sup> 이 연구는 그간 면방직업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1950년대 나일론의 유행에 주목하고 사회적, 정치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정은의 연구는 나일론 직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배경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 화학섬유산업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피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화학섬유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산 설비가 대부분 자동화되어있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방직산업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화학섬유공장은 면방직공장이나 중화학공업과 달리 특정한 성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었지만 공정 특성상 개인의 학력과 젠더에 따라 배치되는 업무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화 시기의 화학섬유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방직산업이나 중화학공업과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봐야 하고 공장이 위치했던 지역과 실제로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의 관점으로 화학섬유산업을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7) 이상철, 「韓國化學纖維産業의 展開過程(1961~1979) : 産業政策의 一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상철, 「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화학섬유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經濟發展研究』 4(1), 한국경제발전학회, 1998. ; 이상철, 「한국에 있어서 화학섬유의 수입대체와 정부의 역할 (1965-1972)」, 『經濟史學』 25, 경제사학회, 1998.

8) 원영미, 「어느 노동자의 경험 읽기」, 『울산사학』 21, 울산대학교 사학회, 2017.

9) 이정은, 「1950년대 나일론 유행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자본의 대응」, 『역사와 담론』 100, 호서사학회, 2021.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여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일대에 위치한 태광 산업, 동양나이론, 선경직물 공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화 시기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화학섬유공장이 건설되는 과정을 정리한다. 둘째,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경험과 생활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화학섬유산업 노동의 특징을 밝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계화되어 있었던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산업 구조가 남성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여성노동자가 지역의 산업화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화학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정책과 산업의 특징을 살피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울산지역에 화학섬유공장이 건설되는 과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울산 화학섬유 생산 공장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경험을 작업 현장 내부의 노동 조건과 작업 현장 외부의 생활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이 젠더에 따라 위계화되어가는 현상과 여성노동자들의 존재가 지역의 산업화 역사에서 잊혀져간 과정을 화학섬유 생산 공정의 특성, 공장 노동에 대한 사회적 또는 자기 인식, 당시 지역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회사에서 발간한 사사(社史)와 『사보 토프론 소식』, 『사보 선경』, 『효성』, 한국화섬협회에서 발간한 『화섬』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외 『울산통계연보』, 『노동통계연감』 등의 통계자료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의 신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과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 울산노동역사관1987에 소장되어 있는 노동조합 발간 신문과 소식지, 메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술 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한 구술 자료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지역사연구팀이 수행한 구술녹취연구사업의 결과물로 그 중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노동자의 구술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울산기록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울산민주화운동구술채록사업의 인터뷰 중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했던 남성노동자들의 구술 자료도 확보하여 활용했다.

## II. 화학섬유산업의 육성과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 건설

### 1. 경제개발계획과 화학섬유산업의 육성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울산 화학섬유산업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정책 하에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그 배경으로 박정희 정부의 화학섬유업의 육성 정책과 화학섬유업의 전반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화학 섬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나일론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로 보인다. 당시 신문에서는 나일론을 ‘천연견사보다 강하고 구김이 적으며 부드러운 장점을 가진 반면 한 번 구겨지면 펴기 어렵고 훌렁거려 옷의 모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살에 직접 닿는 내의에는 적당하지 않다.’ 고 소개하고 있다.<sup>10)</sup> 나일론은 의복, 수술용 실, 칫솔, 낙하산, 타이어, 스포츠웨어, 테이프, 로프, 호스 등에 사용되는 합성섬유로 천연섬유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고 다양한 색으로 염색이 가능하며 손질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꿈의 섬유”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일론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미군의 낙하산과 나일론 양말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었다.

나일론이 처음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에는 정부가 「전시생활개선법」<sup>11)</sup>을 통해 나일론으로 된 의류 착용을 금지하기도 했다.<sup>12)</sup> 나일론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일반화되고 여성복 옷감으로 인기를 끌며 의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1950년대 신문기사에서는 여자란 여자는 나일론을 몸에 걸치지 않으면 거리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나일론으로 치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sup>13)</sup> 나일론은 일반화되는 수준을 넘어 크게 유행했다. 한편 나일론은 여전히 사치품과 밀수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14)</sup> 신문 기사에서는 나일론 의복은 통기성이 나빠 의복으로서의 실용적이지 못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단점까지 거론되었지만<sup>15)</sup> 나일론 옷을 가지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까지 존재했을 정도로 1950년대 나일론의 유행은 선풍적인 것이었다.<sup>16)</sup>

1950년대 나일론의 유행과 함께 나일론 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이 준공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일론 직물공장은 1954년 태창방직(泰昌紡織)이 휘경동에 1억 6천만 원의 한화와 십만 불의 외화를 투입하여 직기 500대, 연사기 60대 규모로 건설한 직물공장이다.<sup>17)</sup> 이후 1957년 11월 경 선경직물이 생산 공장을 만들어 나일론 직물 생산을 시작하고 1959년 3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만 불을 대부분이 나일론 원사에 풀을 먹이는 사이징 설비를 도입하면서 나일론 직물의 대량생산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sup>18)</sup> 1957년 4월에 설립된 한국나일롱주식회사가 1959년부터 월산 12.6톤의 능력으로 나일론 스트렛치사<sup>19)</sup>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가공사도 일부 생산되었다.<sup>20)</sup>

10) 「비단을 능가할수있는 나이론의 섬유 (상)」, 『동아일보』, 1939.05.12. ; 「비단을 능가할수 있는 나이론의 섬유 (하)」, 『동아일보』, 1939.05.13.

11) 「전시생활개선법」, (제7조) 전시에 있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복장의 착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8조) 전시에 있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률 제225호, 1951.11.18. 제정)

12) 「戰時生活施行令今明公布」, 『동아일보』, 1952.08.30.

13) 「사치는 나라를 망친다」, 『조선일보』, 1954.08.19.

14) 「奢侈는亡國의길」, 『조선일보』, 1954.04.27. ; 「密輸品摘發二億突破 골머리않는 稅關」, 『경향신문』, 1954.06.10. ; 「이나라를 누가 구할것인가」, 『조선일보』, 1954.07.09. ; 「甲午旋風 나이롱」, 『조선일보』, 1954.12.23.

15) 「潛望鏡」, 『경향신문』, 1954.05.17. ; 「犠牲의인流行女性」, 『경향신문』, 1954.06.28. ; 「겨울철피부위생」, 『조선일보』, 1954.12.23.

16) 「夫婦言爭 끝에自殺 나이론衣服이 禍根」, 『경향신문』, 1955.07.16. ; 「「나이론」치마에 有罪 妙齡處女가自殺未遂」, 『경향신문』, 1955.08.12. ; 이정은, 「1950년대 나일론 유행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자본의 대응」, 『역사와 담론』 100, 호서사학회, 2021, 323~328쪽.

17) 「우리나라最初の 나이롱工場出現」, 『동아일보』, 1954.10.24. ; 「나이롱織造工場竣工 不遠月間 40萬碼生産」, 『조선일보』, 1954.10.24.

18) 선경그룹 홍보실, 『선경 40년사』, 1993, 197쪽.

19) 스트렛치사란 나일론-폴리에스터섬유-폴리프로필렌 섬유 등을 특수 가공하여 신축성을 준 합섬사를 말한다. (섬유정보센터, 섬유용어사전 <http://www.textopia.or.kr/contents/main.do>)

20) 이교영, 「제2편 합섬부터 시작한 우리 화학산업」, 한국화학협회, 『한국의 화학산업 -어제 오

국내에서 화학섬유의 원사 생산은 1959년 미진화학섬유공업주식회사(美進化学纖維工業株式會社)의 사장 이상봉(李相鳳)이 원조 자금 47만여 불로 부산에 비닐론<sup>21)</sup>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미진화학섬유공업주식회사의 비닐론 생산 공장은 원료인 PVA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원사를 생산했고 1962년 당시 일산 2톤, 연간 1백 50만 파운드의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sup>22)</sup> 이후 한국나일론이 1963년 8월 대구에 나일론 F사<sup>23)</sup> 일산 2.5톤 규모의 원사 제조공장을 준공<sup>24)</sup>하고 한일나이론이 1964년 7월 조업을 시작하면서부터<sup>25)</sup>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대규모 화학섬유산업이 성장했다.

화학섬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군사정부 초기부터 주요 경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재건촉진회(이후 한국경제인협회로 개칭)가 작성한 「기간산업건설계획안」에는 1차로 비료, 시멘트, 제철, 정유, 인조화학섬유 5개 부문에 걸쳐 7개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주로 수입대체산업부문의 공장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sup>26)</sup>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종합경제재건계획(안)」에서는 1962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5개년 간 연평균 7.1%, 총 46.3%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본 계획의 목표가 있음을 명시하고<sup>27)</sup> 계획기간 중 투자되는 내자와 외자 소요액을 책정하였다. 이 계획에 나타나있는 제2차 산업 중 제조업의 투자 금액은 원화 3천 521억 원, 외화 3억 1천 197만 불이며 이 투자에는 인건사와 인조섬유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sup>28)</sup>

화학섬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계속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섬유 국산화를 이루고자 했다. 정부는 섬유에 대한 기호가 점차 화학섬유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나일론사, PVA섬유 등 일부 화학섬유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폴리아크릴, 폴리에스텔, 인견스프면, 폴리프로피렌, 아세테이트 및 나일론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화학섬유공업을 수입대체 또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sup>29)</sup>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화학섬유산업은 보다 더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국내 화학섬유산업의 생산 규모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나일론, 한일나이론에 이어 1968년에 동양나이론 공장이 건설되어 나일론사 생산을 시작하면서 1969년 당시 국내 나일론사의 생산량은 11,756톤으로 늘어났는데 1967년도의 국내 나일론사의 생산량이 2,040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sup>30)</sup> 불과 2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늘과 내일-』, 한국화섬협회, 1993, 78쪽.

21) 비닐론은 1939년 일본에서 발명한 폴리비닐알코올계(PVA) 섬유이다. 면과 비슷한 성질이지만 면보다 가볍고 마찰력도 강하여 작업복, 유니폼, 교복 및 아동복에 적합하다. 흡수성과 보온성도 뛰어나 속옷, 모포, 파자마 등에도 사용되며 양모, 레이온, 목면 등과 혼방하거나 교직시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섬유정보센터, 섬유용어사전 <http://www.textopia.or.kr/contents/main.do>)

22) 「미구론」, 『경향신문』, 1962.08.28.

23) 섬유는 길이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필라멘트(Filament)사란 방사 노즐을 통해서 방출된 길이가 무한대인 섬유를 뜻하며 장섬유 또는 F사로도 불린다. 스테이플파이버(Staple fiber)란 단섬유라고도 하며 길이가 짧은 섬유를 일컫는다. 단섬유를 꼬아서 만든 것이 방적사인데 방적사는 보온성과 촉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토우(Tow)란 장섬유를 합친 섬유 다발을 일컫는 용어이다. 토우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스테이플로 만들 수 있다.

24) 코오롱, 『코오롱 20년사』, 1977, 72쪽.

25) 「韓一나이론操業式」, 『동아일보』, 1964.07.30.

26) 「七個基幹産業建設計劃」, 『경향신문』, 1961.09.15.

27)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 『종합경제재건계획(안)해설』, 1961, 5쪽.

28)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 『종합경제재건계획(안)해설』, 1961, 40쪽.

29) 대한민국정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 1966, 84쪽.

30) 한국화섬협회, 『화섬』 제12호, 1971, 72쪽.

이를 통해 화학섬유산업이 1960년대 말부터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산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의 화학섬유산업이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외화 절감을 위한 수입 대체산업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화학섬유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각 기업이 경쟁적으로 나일론사를 생산하고 공장 증설에 들어가면서 1969년에는 일시적으로 국내 나일론 섬유업체가 불황에 빠졌기 때문이다.<sup>31)</sup> 화학섬유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원사 생산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화섬 공장 설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정부는 화학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우선 1967년 3월에 「섬유공업 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섬유공업시설은 상공부의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상공부장관이 섬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수출계획과 등록된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을 감안하여 시설조정 계획을 공고하도록 했고<sup>32)</sup> 정부의 승인을 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원자재를 자가생산하여 최종 상품을 제조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sup>33)</sup> 이외에도 1970년 11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비축분 수입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고<sup>34)</sup>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수입담보금 적립<sup>35)</sup>, 화학섬유류에 부과되던 물품세 조정<sup>36)</sup>, 감가상각 단축<sup>37)</sup> 제도 등을 통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971년까지 화학섬유 제조시설의 관세 면제가 계속되었고<sup>38)</sup> 1970년부터는 어망 제작에 사용되는 나일론의 원료 카프로락탐에 대한 수입 관세도 면제되도록 했다.<sup>39)</sup>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는 중화학공업이 경제 계획의 중심이 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원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화학섬유의 주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석유화학계열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카프로락탐, AN모노마와 같은 화학섬유의 원료를 국산용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원가 절감과 시설 규모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 목표가

31) 「不況打開에 안간힘」, 『매일경제』, 1969.05.08.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률 제 1906호, 1967.03.03. 제정.

33)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5321호, 1969.08.12, 8쪽.

34) 이 고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아크릴 섬유 및 아크릴 방적사, 폴리에스터 섬유 및 F.폴리에스터 사, F.나일론사(70D, 100D)이었으며 위의 품목은 사전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입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5690호, 1970.11.04., 5쪽.)

35)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5798호, 1971.02.06, 6쪽.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2332호, 1972.01.01. 제정.

37)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4907호, 1968.03.27, 19쪽.

3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관세법」, 법률 제1976호, 1968.01.01. 시행.;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개정의 건」, 재무부령 제545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5056호, 1968.09.23, 2쪽.);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령 중 개정령」, 재무부령 제804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5638호, 1970.08.31., 15쪽.)

39)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령 중 개정령」, 재무부령 제783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5562호, 1970.05.30, 7쪽.)

되었다.<sup>40)</sup>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바탕으로 1970년대에 이르면 화학섬유의 생산 가능 품목이 늘고 생산 규모도 증가한다. 1966년 당시에는 7개의 업체가 일산 20.8톤의 규모로 화학섬유 3개의 종류만을 생산했다. 그런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종료된 1971년 국내 화학섬유의 생산능력은 일산 258.2톤으로 크게 늘었고 제3차 경제개발이 끝나는 1976년 말에 이르면 18개 업체가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비닐론, 비스코스 아세테이트 섬유 등 7개 종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화학섬유의 전체 생산 능력은 일산 873.1톤으로 증가했다.<sup>41)</sup>

국내 화학섬유의 생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1970년이 지나면 화학섬유의 총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섬유 수요와 공급의 변화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화학섬유 수요, 공급 변화 추이

단위 : 톤

구분 연도	수요			공급			
	수출	내수	합계	생산량	수입	연초재고	합계
1968	26,272	41,153	67,425	16,712	51,070	1,811	69,593
1969	33,785	47,810	81,595	33,441	48,529	2,168	84,138
1970	49,902	52,607	102,509	53,085	50,807	2,542	106,434
1971	74,795	51,093	125,888	74,807	52,918	3,925	131,650
1972	98,225	54,035	152,260	97,349	53,387	5,730	156,466

출전 : 한국화섬협회, 『化纖』, 제17호, 1973, 68-69쪽에서 작성.

1968년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은 16,712톤으로 당시 내수량인 41,153톤에 한참 모자랐다. 이러한 현상은 1969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70년부터는 생산량 53,085톤, 수입량 50,807톤으로 생산량이 수입량을 능가하기 시작했고 1971년에 이르면 국내 생산량으로 내수량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 국내 생산량은 572% 증가한다.

40) 대한민국정부, 『第3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1972-1976』, 1971, 61쪽.

41) 한국화섬협회, 『한국화섬협회 50년사』, 2013, 15쪽.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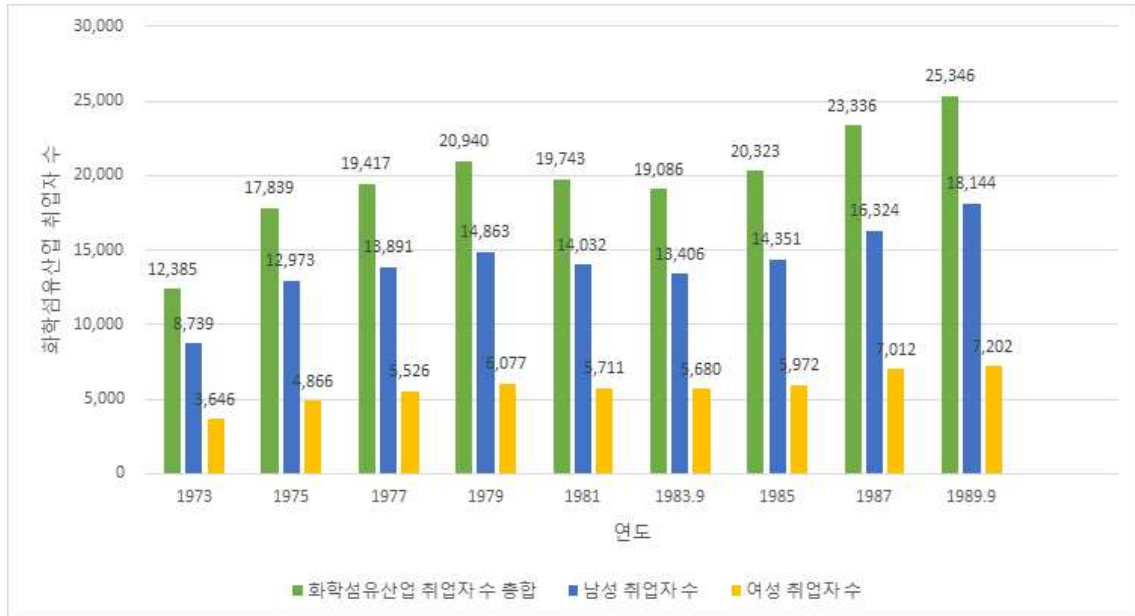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화학석유산업 취업자 수  
출전 : 한국화석협회, 『화석』, 각 년도.

화학석유산업의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시기 화학석유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화학석유산업 취업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화학석유산업의 총 취업자 수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석유산업의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1973년에는 남성 8,739명, 여성 3,646명으로 총 12,385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면 화학석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남성 18,144명, 여성 7,202명으로 총 25,346명이 되었다.<sup>42)</sup> 화학석유의 생산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산업의 규모에 비해 전체 노동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용추이가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의 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산업화시기 화학석유산업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하에서 발달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화학석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계획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과 통제 정책을 펼치며 화학석유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 결과 한국의 화학석유산업은 1960년대에 이르러 발흥한 신규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 2. 울산지역 화학석유공장의 건설

해방 이후 울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울산의 상공업을 주도했던 일본인들이 철수하고 한국

42) 한국화석협회, 『화석』, 각 년도.

전쟁을 거치면서 공업센터 지정 이전까지는 주목할 만한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 및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했고 1955년 매암동 일대에 건설된 울산 최초의 근대식 공장인 삼양사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울산의 공업은 정부가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박정희 정부는 울산군 울산읍(蔚山邑), 방어진읍(方魚津), 대현면(大峴面) 전역, 청량면(靑良面) 두왕리(斗旺里), 범서면(凡西面) 무거리(無去里)와 다운리(茶雲里), 농소면(農所面) 화봉리(華峰里)와 송정리(松亭里) 전역을 공업지구로 지정하고 정유, 제철 및 비료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sup>43)</sup> 공업지구가 결정된 이후 1962년 2월 3일 울산 대현면에서 기공식이 열렸고<sup>44)</sup> 대규모 공장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공사와 산업 시설 운영을 위한 용수, 도로, 항만 공사가 시작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이어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1967년 7월 울산이 석유화학공단 입지로 선정됨에 따라<sup>45)</sup> 울산군 부곡동(夫谷洞) 일대(현재 울산 남구 부곡동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었다.<sup>46)</sup> 이와 발맞추어 1967년에는 선암동에 태광산업이, 1968년에는 매암동에 동양나이론이, 1974년에는 황성동에 선경합섬이 건설되었다. 이로써 울산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계열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화학섬유, 시멘트, 비료, 정유, 전력 분야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했다.<sup>47)</sup>

태광산업의 창업자 이임용(李任龍)은 1961년 경남모방의 지분을 구입해 경영에 참여하다가 1960년 9월 자본금 1억 환으로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에 태광산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sup>48)</sup> 태광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던 이임용은 원사를 구매해 직물을 제조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원사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심하고 1963년 10월 부산진구 가야동에 아크릴섬유공장을 건설했다. 가야공장은 1963년 11월 1일 복직기 25대, 방모방 450추로 조업을 시작했고 아크릴 원사 생산과 함께 염색시설을 자체 설비로 운영했다. 1965년부터는 아크릴 스웨터와 모직물 수출도 전개하기 시작했다.<sup>49)</sup>

1962년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아크릴섬유를 비계획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아크릴섬유공장 실수요자 공모가 발표되었다. 아크릴 섬유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태광산업은 아크릴섬유공장 추가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정부에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태광산업의 계획은 삼덕무역이 같은 내용의 아크릴섬유공장 건설계획을 제출하면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정부는 1963년 1월 차관계약에 대한 확정계획서와 기술원조 계약서를 제출하고 차관계약이 이루어지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사 구성, 주식지분 비율, 품종 선정, 차관 공여자의 선택까지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공장 건설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태광산업은 정부가 공장 건설의 허가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까지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광산업 측에서는 기존에 이미 아크릴 직물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앞으로의 아크릴 산업의 잠재성도 밝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아크릴 섬유공장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963년 10월 태광산업과 삼덕무역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동양합섬주식회사

43) 「蔚山綜合工業地區 確定」, 『동아일보』, 1962.01.27.

44) 「蔚山工業센터 現地서起工式」, 『동아일보』, 1962.02.04.

45) 「綜合製鐵…浦項 石油化學…蔚山」, 『조선일보』, 1967.07.08.

46) 김승석,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59쪽.

47)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2014, 224-225쪽.

48) 태광50년사편찬위원회, 『태광50년사』, 2000, 80~81쪽.

49) 태광50년사편찬위원회, 『태광50년사』, 2000, 83~88쪽.

(東洋合纖株式會社)가 설립되었고 아크릴 6톤 규모의 공장 건설이 확정되었다. 또한 정부에 의해 국회의원 김원태(金元泰)가 동양합섬주식회사의 대표로 임명되었으며 태광산업과 삼덕무역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측근이었던 서정귀(徐廷貴)도 합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공장 건설 과정에서 삼덕부역이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회사의 갈등이 다시 노골화되었고 애초 단독 경영에 뜻을 두고 있었던 태광산업은 1차로 서정귀의 소유지분을 매입하고<sup>50)</sup> 1971년에는 동양합섬을 흡수, 합병하여 단일 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51)</sup>

외자 380만 달러와 내자 9억 4천만 원을 들여 건설된 동양합섬 아크릴 공장은 1967년 4월 울산 선암동 일대에 연산 1,980M/T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22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일부는 수출을 통해 26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sup>52)</sup> 동양합섬이 공장 건설 부지로 선암동 일대를 선택한 것은 울산이 공업용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아크릴공장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공장 준공을 마친 한일합섬은 곧바로 증설에 착수하였고 이후 1971년에 이르러 태광산업이 동양합섬을 흡수, 합병하여 단일 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53)</sup>

1968년에는 일산 7.5톤 규모의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이 완공되었다. 동양나이론 울산 공장에는 외화 8백 49만 불, 내자 12억 원이 투입되었다.<sup>54)</sup> 동양나이론의 창업자 조홍제(趙洪濟)는 국내 나일론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공장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일론 원사 생산뿐만 아니라 당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나일론의 원료 카프로락탐 공장 건설 계획에도 착수했다.<sup>55)</sup>

조홍제와 신규 사업 기획팀은 1964년 11월에 차관 1,715만 달러, 내자 7억 원을 들여 울산에 일산 18M/T의 카프로락탐 생산 공장과 일산 5M/T의 나일론 원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안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sup>56)</sup> 기존의 나일론 제조사들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카프로락탐을 효성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공급이 과잉될 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 면에서도 효성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며 효성의 사업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존 업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3사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조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정부는 기존에 예측한 나일론 수요량을 수정, 공표하여 효성의 공장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하는 한편 카프로락탐의 생산 공장은 3사가 공동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효성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양나이론과 한일나이론에 각각 일산 7.5톤, 한국나이론 15톤의 생산규모가 확정되었고 세 회사의 공동 출자를 통해 ‘동양카프로락탐’을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sup>57)</sup>

효성은 단독으로 카프로락탐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선발 업체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효성은 타이어의 재료가 되는 타이어코드지<sup>58)</sup> 생산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울산에 타이어코드지 생산

50) 태광50년사편찬위원회, 『태광50년사』, 2000, 92~94쪽.

51) 「泰光서東洋흡수」, 『매일경제』, 1971.07.12.

52) 「東洋合纖 아크릴工場 20日에 竣工」, 『매일경제』, 1967.04.20.

53) 「泰光서東洋흡수」, 『매일경제』, 1971.07.12.

54)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준공」, 『매일경제』, 1968.07.16.

55) 조홍제, 『나의回顧』, 주식회사 효성, 2000, 264쪽.

56) 동양나이론주식회사, 『동양나이론 20년사』, 1993, 113쪽.

57) 동양나이론주식회사, 『동양나이론 30년사』, 1996, 371~372쪽.

58) 타이어코드지란 압축공기를 넣을 수 있는 타이어의 골격을 구성하는 직물을 말한다. 주로 자동차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효성은 1966년 7월 일본 이토추상사(C. Itoh Co.)로부터 선적기간 18개월, 1년 거치 후 8년간 상환, 이자율 연 6%의 조건으로 6,410,000달러의 차관 계약을 맺고, 서독 비커스 짐머(Vickers Zimmer)사와 선적기간 18개월, 6개월 거치 후 10년간 상환, 이자율 연 7%의 조건으로 2,080,000달러의 차관 계약<sup>59)</sup>을 마쳤다. 차관 계약을 마친 후 1966년 11월에는 화학 섬유 제조 가공 및 판매, 타이어코드 및 어망사 제조, 가공 및 판매,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東洋나이론株式會社’의 설립등기를 완료했다.<sup>60)</sup>

효성은 차관 계약을 마치기 전인 1965년 2월부터 경남 울산시 매암동 588번지 일대 공장 부지 건설에 들어갔다. 울산 매암동이 공장 부지로 선정된 것에는 울산지역 일대가 공업 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항만, 전기, 용수, 교통 등 간접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정유 공장에 인접해 있어 향후 카프로락탐 공장이 울산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증설을 고려해 1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점, 큰 규모의 화물선을 바로 댈 수 있어 수입과 수출에 용이한 점, 부지 지반이 탄탄한 점이 이유로 작용했다. 공장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획팀은 이 일대 12만 937평에 대한 공장부지허가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1965년 12월 지정 승인을 받아 1965년 1월 경상남도과 용지 조성 계약을 마쳤다. 총 조성 면적은 육지 100,186평, 공유 수면 매립지 20,771평이었다. 1966년 5월 무렵 그동안 경남 도청과 분규를 거듭해온 토지유가물 보상 문제와 분묘 이장 문제도 해결되어 곧바로 진입로 공사에 착공했다. 1966년 11월 말,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나자 곧바로 본 공사에 착공하여 1968년 7월 16일 울산공장 준공식이 시행되었다.<sup>61)</sup> 이로써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은 나일론 사 일산 7.5톤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산업용·의료용 섬유, 어망사, 타이어코드의 국내수요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4백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sup>62)</sup>

태광산업의 아크릴 생산 공장, 동양나이론의 나일론 생산 공장에 이어 1974년 울산 황성동 일대에 선경합섬의 일산 100톤 규모의 폴리에스텔 공장도 완공되었다.<sup>63)</sup> 선경합섬의 모기업인 선경직물주식회사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자체 개발한 ‘닭표’ 안감, ‘봉황새’ 이불감, ‘곰보’ 나일론 등이 인기를 끌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크레폰(Crepon), 앙고라(Angora), 깔깔이(Georgette)를 개발하여 국내 의류 시장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직물 기업이었다.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경직물이 울산으로 오게 된 것은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1968년 울산에 자회사인 울산직물주식회사(蔚山織物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울산시 우정동 369번지에 섬유공장을 건설하면서부터였다. 197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울산직물공장에서는 주로 폴리에스텔을 원료로 한 직물이 생산되었으며 원사가공부터 제직, 후처리까지 가능하여 저렴한 생산 원가로 직포를 생산할 수 있었다. 울산직물주식회사의 상호는 1971년에 선일섬유주식회사(鮮一纖維株式會社)로 변경되었다가 1974년에는 본사를 울산에서 수원으로 옮겨가면서 울산에서 더 이상 생산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다.<sup>64)</sup>

선경직물은 1973년 울산시 황성동에 일산 100톤 규모의 선경합섬 폴리에스텔 섬유공장 건

또는 자전거용 타이어에 활용된다. (섬유정보센터, <http://www.textopia.or.kr/contents/main.do>)

59)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자본재도입에대한지불보증(효성물산주식회사)(11회)」,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496, 1967.

60) 「會社設立公告」, 『한국일보』, 1966.11.08.

61) 동양나이론주식회사, 『동양나이론 20년사』, 1993, 120~129쪽.

62) 「<동양나일론> 울산공장준공」, 『매일경제』, 1968.07.16.

63) 「鮮京PE파이버工場 준공 하루 백톤生産규모」, 『매일경제』, 1974.12.03.

64) 선경그룹홍보실, 『선경40년사』, 1993, 308~309쪽.

설을 시작했는데 이 공장 건설은 선경의 석유화학계열공장 건설계획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었다.<sup>65)</sup> 선경합섬 폴리에스텔 공장은 일본 데이진과 합작하여 내자 64억 원, 외자 3,530만 달러를 투입하여 1974년 12월 완공되었다. 그러나 당시 1974년 5월에 이미 완공되어 있었던 34톤 시설은 재고 과다로 인해 17톤 규모의 시설만 가동되었으며 폴리에스텔 섬유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어 선경합섬의 공장은 대규모 공장을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과 동시에 풀가동 하지는 못했다.<sup>66)</sup> 그러나 선경합섬은 기간산업 확충에 대한 자기 의지를 갖고 1980년에 유공을 인수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계열화를 이루었고 울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지역에 화학섬유공장 건설이 결정된 데에는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 대규모 석유화학공단과 정유공장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각 기업은 울산에 생산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항만, 용수, 전기, 교통 등 여러 가지 간접 자원을 활용하기가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울산에 화학섬유의 원료 공장이 추가로 건설될 수도 있다는 기대, 혹은 기존의 정유 공장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울산을 화학섬유공장 부지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민간 기업의 기대나 의지와는 별개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화학섬유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개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법인 설립, 공장 건설 승인, 외자 도입에 대한 승인 과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까지 철저히 통제하여 정부의 계획에 적합한 공장을 설립하도록 강제했다. 민간 기업은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여 건설 허가를 얻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지분을 인수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민간 기업의 기대가 중첩되어 건설되었고 공장이 건설된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이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석유화학단지 내에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지역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울산으로 유입되었다.

표 2 울산시 인구변화 추이

단위 : 명

연도	남	여	총 인구수
1962	42,007	43,075	85,082
1963	45,538	46,103	91,641
1964	47,210	47,608	94,818
1965	48,048	48,653	96,701
1966	57,633	55,215	112,848
1967	61,563	60,851	122,414
1968	66,853	64,948	131,801
1969	72,515	70,236	142,751*
1970	81,850	77,490	159,340

출전 : 울산시, 『울산시 통계연보』, 1971.

\*합계 값에 오류가 있어 수정함.

울산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울산이 시로 승격되고 공업센터로 지정되었던 1962년

65) 선경그룹홍보실, 『선경40년사』, 1993, 315쪽.

66) 「鮮京PE파이버工場 준공 하루 백톤生産규모」, 『매일경제』, 1974.12.03.

당시 울산의 총 인구수는 85,082명이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70년 말에 이르러 159,340명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었던 울산 남구 일대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62년 남구 지역의 총 인구는 27,180명으로 이는 울산시 전체인구의 약 32%에 해당했다. 1970년에 이르러 65,987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70년 당시 울산시 전체인구의 41.4%를 차지하는 수치로 남구 일대의 공단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공단이 조성되고 인구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장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외에도 시내 곳곳에 ‘요정’을 비롯한 무허가 주점 300여 개소와 130개소의 식당이 들어서면서 접대부의 수만도 무려 10배가 넘는 2,000명에 달할 정도였으며<sup>68)</sup> 공단 주변의 유흥업소가 성업을 이루자 접대부와 공단을 상대로 하는 폭력배들도 모여들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sup>69)</sup>

표 3 울산시 산업 변화와 공업 인구 변화 추이

업종별	1962년		1980년		B/A
	공장 수(개)	종업원 수(A)	공장 수(개)	종업원 수(B)	
전 체	42	742(명)	143	66,529(명)	89.7
식 품	8	177	20	1,255	7.1
섬 유	2	42	4	3,435	81.8
목 재	3	20	10	1,769	88.5
종이, 인쇄	3	10	1	260	26.0
화 학	1	37	53	12,234	330.7
비 금 속	3	39	4	147	3.8
1차 금속			2	723	728.0
기계, 장비	7	57	48	46,701	819.3
기 타	9	333	1	5	0.0

출전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의 성장과정과 지역적 특성』, 1981, 82쪽에서 재인용.

※1962년과 1980년의 통계 간에는 산업분류와 조사대상기업 선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62년 이전까지 울산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했었지만 대규모 공업 단지가 조성되고 공업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울산지역 내 공업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2년 울산지역 주요 사업장의 노동자는 742명에 불과했었지만 1980년에 이르면 약 90배 가까이 증가하여 66,529명에 이르렀다. 울산시 공업의 업종별 구성비 변화 역시 1962년에는 식품이 23.8%, 기타 공업이 48.5%를 점하고 있었지만 1970년도에는 화학 33.4%, 기계 29.9%, 섬유 18.2%가 주요 공업을 이루고 있었고 1980년도에 이르면 기계 67.8%, 화학 17.7%, 섬유 8.4%로 변화하고 있다.<sup>70)</sup> 이렇게 울산의 공업 구조가 중화학공업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울산 지역에 모여든 노동자들은 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섬유공업 등과 같은 기간 산업체에 취업했다.

1973년 당시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노동자 수를 사업체별로 파악할

67) 한삼건, 『울산공업센터 반세기』, 울산광역시 남구, 2012, 108~110쪽.

68) 「蔚山10年 어제와 오늘—어떻게 달라졌나 草家가 高層건물로」, 『경향신문』, 1972.02.11.

69) 「農村 새 風俗圖 (135) 工團사회 [32] 暴力輩등쌀」, 『경향신문』, 1978.04.11.

70)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의 성장과정과 지역적 특성』, 1981, 95쪽.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태광산업과 동양나이론이 속해 있었던 장생포출장소의 자료를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sup>71)</sup> 장생포출장소에 등록된 두 업체의 직원 수는 남성노동자 1,048명, 여성노동자 828명으로 총 1,876명이었다.<sup>72)</sup> 1974년에는 각 사업체별로 취업 인원이 집계되어 있는데 1974년 태광산업에는 1,387명<sup>73)</sup>, 동양나이론에는 1,161명의 종업원이 있었다. 우정동에 위치해있었던 선일섬유의 고용인원은 1974년 당시 5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 선일섬유는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과 같은 고용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 울산지역에서 1,000명 이상 고용이 이루어졌던 대규모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태광산업, 동양나이론 뿐이었고<sup>74)</sup> 불과 1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1970년대 중반 울산지역의 화학섬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

#### 1. 울산 화학섬유공장 노동자의 노동 조건

화학섬유의 생산 공정은 크게 저분자화합물에서 고분자화합물로 만드는 중합(重合)공정과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고분자화합물을 가늘고 긴 섬유형태로 만드는 방사(紡絲)공정으로 나뉜다.<sup>75)</sup> 나일론 섬유의 경우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용융시켜 안정제와 중합촉매를 첨가한 후 중합탑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나일론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중합공정이라 한다. 중합된 나일론을 급냉 시킨 후 절단하면 나일론 칩의 형태가 되고 나일론 칩을 세척한 후 건조가 완료되면 이를 방사 공정으로 이동시킨다.<sup>76)</sup> 중합공정은 모두 중앙의 컨트롤 룸에서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현장에 노동자들이 직접 투입되어 노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sup>77)</sup>

다음 방사공정에서는 중합된 나일론 칩을 다시 용융시켜 긴 섬유의 형태로 방사시킨다. 이렇게 방사된 실을 미연신사(未撚伸糸)라고 하는데 미연신사의 경우 강도나 분자의 배열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신기에 걸어서 꼬아 용도에 맞게 변형한 후 보빈에 감으면 나일론 원사가 완성된다.<sup>78)</sup> 이렇게 감아진 실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포장된다.<sup>79)</sup>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에서는 나일론 원사 외에도 타이어코드지가 생산되었다. 타이어코드지 생산 공정은 크게 연사공정, 제직공정, 열처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사공정에서

71) 당시 장생포출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섬유제조 업체는 2개로 되어 있는데 당시 장생포출장소 지역에 존재했던 섬유 제조업체는 태광산업과 동양나이론 뿐이었다.

72)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1974, 204쪽.

73) 울산시 통계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취업 인원은 사무직 42명, 기타 1,345명이나 합계 값에 오류가 있어 사무직과 기타 인원을 합친 수로 표기하였다.

74) 울산시, 『울산통계연보』, 1975, 173쪽.

75) 이상철, 「韓國化學纖維產業의 展開過程(1961~1979) : 産業政策의 一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14~15쪽.

76)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10년사』, 1976, 414~415쪽.

77) 효성물산, 『효성』 통권 17호, 1981.10.31., 36쪽.

78)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10년사』, 1976, 415~416쪽.

79) 효성물산, 『효성』 통권 17호, 1981.10.31., 36쪽.



는 원사를 ‘Z’ 자와 ‘S’ 자 방향으로 꼬아 주고 연사 공정을 거친 실을 직기에서 제직해 생지를 만드는 공정을 제직공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론 생지와 고무와의 접착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온으로 열처리하는 공정을 열처리 공정이라 한다.<sup>80)</sup> 동양나이론 코드과는 전체 공정 중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은 공정이었다. 코드과의 현장 노동자들은 조를 나누어 기계의 실이 끊어지거나 멈추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가동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업무를 맡았다.

1970년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에는 경리부, 업무부, 생산부, 가공부, 기술부, 공무부 총 6개의 부와 15개의 과가 존재했다.<sup>81)</sup> 이 중 원사 및 가공사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는 생산부와 가공부였다. 1981년 당시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과는 생산부 연신과였다. 연신과에는 총 26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고 연신 3개 반, 보전, 정경, 선별반 등 6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었다.<sup>82)</sup> 동양나이론 연신과는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으로 방사된 실을 용도에 맞도록 연신처리를 한 후 실 걸이에 감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실 걸이에 실이 감기면 선별반에서 감긴 실의 상태를 구분하고 정리한 후 외관검사를 통해 오염사와 불량 등을 가려낸 후 최종적으로 포장이 이루어졌다.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은 개인의 학력에 따라 입사 경로와 배치되는 공정이 달랐다. 중합과 방사에 해당하는 선공정에서는 공학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했다. 따라서 선공정에는 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노동자가 채용되었다. 동양나이론 기술계에는 기계과, 섬유과, 화공과, 전기과, 전자공학과, 화학과와 같은 공과 대학 졸업이 필수 조건이었고 이력서와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그리고 병역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류 합격자에 한해 입사 시험을 치루고 입사할 수 있었다.<sup>83)</sup> 태광산업과 선경합섬 역시 기술직의 경우 화공, 섬유, 기계, 전기공학을 전공해야만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루고 입사했다.<sup>84)</sup> 이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직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공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지원하는 데에 진입장벽이 있었다.

이와 달리 후공정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었다. 후공정 역시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기계 보조 업무나 선별, 포장과 같은 공정에는 임금이 저렴한 여성노동자의 채용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일반 생산직의 경우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채용 공고가 게시되거나 지인을 통해 채용 소식을 전해 듣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9년도 매암동에 거주하면서 동양나이론에 입사한 정○준도 방사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같은 동네 친구의 소개로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다. 사내 공시나 지인의 소개 외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를 통해 사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sup>85)</sup> 일반 생산직

80)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10년사』, 1976, 417-418쪽.

81)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10년사』, 1976, 245쪽.

82) 효성물산, 『효성』 통권 18호, 1981.11.30. 48-50쪽.

83) 「社員募集公告」, 『동아일보』, 1967.08.12. ; 「社員募集公告」, 『동아일보』, 1968.09.11.

84) 「당신과 함께 발전하는 鮮京그룹!」, 『동아일보』, 1973.09.24. ; 「社員募集」, 『동아일보』, 1974.04.17.

85)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데려오면 얼마의 포상을 주겠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쪽(중략) 강원도의 모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더기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못 채워지는 인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보고 음... 그러니까 가까이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음... 이런 거였고.”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Ⅲ-A04-1)

역시 입사 시험과 면접을 거쳐야만 입사할 수 있었는데 입사 시험의 과목은 국어, 영어, 일반상식을 묻는 수준으로 대졸 사원의 채용과는 차이가 있었다.<sup>86)</sup> 동양나일론 울산공장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채용조건은 아래와 같다.

---

86)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제2장 채용

제3조(채용연령)

5급 사원은 만18세 이상의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필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취업을 동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채용할 수도 있다.

제4조(전형 시 제출서류)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 1) 자필이력서 1통(사진첨부)
- 2)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통
- 3) 주민등록 등본 1통
- 4)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에 한함)
-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전형)

전형은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실기(實技)에 대한 고사(考査)를 행한다. 단,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또는 업무상 특히 필요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다.

제6조(시용<試用>)

제5조의 전형에 합격한 자는 채용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勤續期間)에 포함시킨다.

제7조(취업 시 제출서류)

전형에 합격된 자는 취업 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서약서(소정양식)
- 2) 신원보증서 및 각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재산증명서(소정양식)
- 3) 취업동의서(만 18세 미만)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근로계약서)

신규 채용될 자는 취업 채용에 앞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의 취소)

신규채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언제든지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아니한 자.
- 2) 수습기간 중 회사규정에 위반한 자.
- 3) 수습기간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
- 4) 학력 및 경력사항을 은폐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5) 전형 시 건강진단에 결함(缺陷)이 있는 자.

87) 「동양나이론주식회사 취업규칙」, 1986.07.01. 시행, 5-6쪽,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동양나일론의 경우 일반 사원은 5급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5급 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필이력서, 최종학교의 생활기록부,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했고 필기, 면접, 신체검사, 실기고사를 거쳤다. 취업 이후에는 서약서와 신원보증서 및 각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증명서,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취업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살펴본 기술계 모집과 달리 특별한 자격증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은 울산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도 공장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도시의 산업 구조가 공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면서 농촌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공장 건설과 공해 피해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울산의 화학섬유공장은 기존의 생활환경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 화학섬유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역시 울산지역 출신의 노동자와 타지에서 유입된 노동자의 비율이 1:1이거나 울산지역 출신 노동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도<sup>88)</sup> 당시 화학섬유공장에 울산지역 출신 사람들이 대거 취업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사 후에는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었다. 동양나일론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한편 1976년 울산 공장 내에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숙련공을 교육하고자 했지만<sup>89)</sup> 직업훈련소가 질적으로 우수한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동양나일론에 취업한 박○순은 직업훈련소 생활 당시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기보다 창립자에 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한다거나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90)</sup> 현장 업무는 단순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미리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참 이상한 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였냐면 창립자에 대한 책자가 있었어요. 조△△라고 하는 창립자가 있었는데 이 책을 주면서 독후감을 쓰게하고 이렇게 했길랑요 ...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대개 단순노동을 어차피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술을 가르치거나 현장에서 누가 와서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뭐 예를 들어 그 담당자들이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기 때문에 많이 놀게 하고 주로 어차피 8시간을 그렇게 때우게 되고 그 나머지 어찌다가 한 번씩 시험을 쳤던 것 같은데 그 시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답... 다 정답을 나눠줬어요. ...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공부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만 색출 할 수 있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sup>91)</sup>

직업훈련은 따로 없고 우리가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그 강의, 강의 받고 저

88) 김○석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89) 「曉星그룹 品質向上·物資節約위해」, 『매일경제』, 1976.04.20.

90)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91) 한국외환은행조사부, 『화학섬유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1971, 88쪽.

멀리 체육,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가고, 극기 훈련 이런 거 하고. ... (기계는) 하루 만에 배워지는 게 있고,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업무 따라 다 틀려.<sup>92)</sup>

당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섬유, 전자, 제과, 신발 공장 등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기술은 이미 많이 분리되어 있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훈련은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에는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sup>93)</sup>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산업 구조가 중공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화학섬유 사업장의 남성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정○준 역시 입사 직후 동기들과 함께 공정에 관련된 직업 훈련이 아닌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체육대회, 수련회 등을 거친 뒤 바로 현장에 배치되어 선배들에게 기계 작동법을 배웠다. 기계 작동 방법을 배우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정에 따라 달랐지만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배울 수 있는 단순 조작이었고 정○준이 담당할 업무 역시 특별한 훈련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노동자라 할지라도 직종에 따라 기술 습득 기회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현대 계열 대공장에서는 공개채용과 직업훈련소, 하청업체를 통해 사원을 모집했는데 공채시험에서는 자동차 관련 지식이나 기능평가 시험이 포함되었다. 또한 현대 계열 사측에서는 사내 직업훈련소를 운영함으로써 기능공 양성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힘썼으며 직업훈련소를 통해 입사하는 과정에서는 직업훈련생의 훈련 태도나 기능 습득 정도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sup>94)</sup> 이에 반해 화학섬유공장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화학섬유 생산 공정이 자동차나 조선소 공장 보다 더 기계 중심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져있고 일반 사원들은 기계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담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교육을 마친 노동자들은 화학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정 외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신입 사원은 현장의 업무와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배치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없었고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치되었다.<sup>95)</sup> 1989년에 동양나이론에 입사한 여성노동자 박○순은 직업훈련소 생활 당시 코드과의 업무가 힘들다는 것을 전해 듣고 면담 시 관리자에게 잘 보여서 코드과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코드과로 가게 되어 코드과에 함께 배치된 동기들과 울기도 했다.

예. 들긴 듣고... 머 어디가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이 코드가(과) 이런데 보면... 좀 코드라는 의미는 좀 쓸만하기는 좀 그런데... 고런데가 사실은 좀 보면 제일 힘들다고 평을 하는데라서 그런데는 될 수 있는대로 안 가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아요. ... (코드과에 배치된) 입사동기들이 다 울길래... 아... 진짜 힘들까 하면서 뭐... 막 울대요. 그래서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울었어요.<sup>96)</sup>

92)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93) 장미경,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61, 2004, 117쪽.

94) 원영미, 「1980년대 울산 대공장 노동자 연구 :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37~40쪽.

95) “그건 회사가 알지. (중략) 우리는 이제 신입사원이 그걸 모르지 현장에 대해서. 방사과면 교육 받아가 실을 방사한다 하면 알지 업무를 모르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지 현장은.”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 월15일 구술.)

부서의 선택은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에 맞는 과에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면서 취업 기회는 양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후공정에 종사한 노동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합공정에 종사한 사람들은 화학섬유공장에서 경력을 쌓아 보다 임금이 높은 정유공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sup>97)</sup> 그런데 그 외의 공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업 성적이 좋고 성과를 쌓아도 승격 제도에 학과시험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sup>98)</sup>

각 공정에 배치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조반(07:00~15:00), 석반(15:00~22:30), 야반(22:20~익일 07:00)의 형태로 하루 8시간, 3교대로 근무했다.<sup>99)</sup> 화학섬유의 생산 공정은 연속 공정이고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장은 24시간 가동되었고 노동자들의 노동 역시 주말이나 휴일의 구분 없이 계속되었다. 3교대로 일하는 조반, 석반, 야반 외에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는 선별반이 운영되기도 했다.

휴일 없이 돌아가는 3교대 근무는 생활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켰다. 특히 조반 근무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중압감 때문에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지각을 하는 날에는 동료에게 추가 근무를 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 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다.<sup>100)</sup> 또한 3교대 근무는 5일을 주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강의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었다.<sup>101)</sup>

동양나이론의 연신과에는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많았고 작업장은 2층 구조였다. 2층에서는 주로 남성노동자들이 기계를 통해 실을 내리고 여성노동자들은 1층에서 실을 받아 규격에 맞게 곱에 감은 후 감긴 실을 기계에서 뽑아 선별과로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했다.<sup>102)</sup> 일반적으로 화학섬유 생산 공정에서 다루는 기계는 거의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 작업의 속도를 노동자에게 맞춰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근무하는 모든 시간을 서있어야 했고 화학섬유가 감긴 곱을 옮기는 작업은 허리와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다.

동료들하고 같이 못 놀았... 놀 수 없는 게 너무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 정도가 바로 옆에 와서 악을 써야만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sup>103)</sup>

귀마개를 하더라도 비행기 이착륙하고 비슷하니까. 그래 늘 끼다 안 껴뽀면 미쳤

96)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97)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98) 효성물산, 『효성』 통권 18호, 1981.11.30. 50쪽.

99) 「동양나이론주식회사 취업규칙」, 5~6쪽. 1986.07.01. 시행,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100)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30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2.

101) 효성물산, 『효성』, 통권 105호, 1989.02.15., 30쪽.

102) 정○준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03)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나 이래 생각 드는데 안 낀다고 답답하다고 안 낀 사람 있거든 땀이 차고 이렇다고. 그런 사람들 가는 거지. 그 대부분 효성이나 화섬사나 이런 데 보면 (난청을 앓는 사람이) 한 90% 이상이.<sup>104)</sup>

화학섬유공장의 노동자들은 심한 소음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생산 현장의 기계 소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회사 측에서 귀마개가 지급되었지만 답답하고 덥다는 이유로 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들 중에는 난청을 앓는 경우도 많았다.

작업 현장의 열기도 화학섬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중 하나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다. 동양나이론에서 생산한 타이어코드는 일반 의류용 원사보다 열 내구성과 고무와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고온으로 열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sup>105)</sup> 때문에 동양나이론 코드과의 노동자들은 매우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다.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일할 정도로 더워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문제였는데 중압(중합)이나 이런 데서는 그니까 칩이고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에어컨 틀어 놓고 기계를 위해서 에어컨 틀어 놓고 있는 반면에 이 밑으로 내려 갈수록 그 열이란 건 엄청나게 많아서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너무 너무 더웠어요. 그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는 40 몇 도 올라가고 이럴 정도로 더워서, 더워서 몬 참아요.<sup>106)</sup>

코드과 작업 현장은 매우 뜨거워 겨울에도 반소매를 입고 작업을 해야 했고 한 여름에는 작업장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어갈 정도였다. 코드과 외에도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작업 환경은 매우 더웠기 때문에 더운 작업 환경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민주노조는 더운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태광산업에서는 작업장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설치되기도 했다.<sup>107)</sup>

다음으로는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전반 울산지역 화학섬유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협소하나 동양나이론 노동조합 자료와 1987년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에서 발간한 『울산지역 7월 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구술자료 등을 통해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국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양나이론의 경우 일반 5급 사원 기본급을 일급으로 지급했는데 1976년 신문 기사에 기재되어 있는 동양나이론의 5년차 중졸 여공 월급은 32,000원 정도였다.<sup>108)</sup> 1987년에는 남성의 초봉은 16만 원, 여성의 초봉은 10만 원에 형성되어 있었다.<sup>109)</sup> 1986년에 태광산업에 입사한 남성노동자 김○석은 첫 월급이 12만 원 정도였다고 기억한다.<sup>110)</sup> 1987년 태

104)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05)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10년사』, 1976, 418쪽.

106)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30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2.

107) 태광산업 노동조합 자료, 1988,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 김○석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08) 「工業団地 -國土改造의 現場을 解剖해 본다 ⑥ 3交代로 「統制·생활」, 『조선일보』, 1976.03.14.

109)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울산지역 7월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1987, 106쪽.

110) 김○석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광산업의 임금은 중졸 남자가 일당 3,550원, 여자는 2,950원이었으며 고졸 남자는 5,750원, 여자는 3,770원으로 고졸 사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sup>111)</sup> 1987년 태광산업 노사분규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12~15만 원 정도였으며 산업체 학생의 임금은 8~10만 원에 불과했다.<sup>112)</sup> 1977년 당시 제조업 전 직종 평균 임금이 남성 91,547원, 여성 41,671원이었고 1980년대 중반 제조업 전 직종 평균 임금이 남성노동자의 경우 310,245원, 여성노동자의 경우 156,405원<sup>113)</sup>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동양나이론 노동조합 소식지」<sup>114)</sup>에 기재되어 있는 1990년 당시 각사 임금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표 4 화학섬유사업장 남성노동자 호봉별 임금표(1990년)

단위 : 원

년	동양	태광	선경	코오롱
1	10,640	11,100	11,123	11,693
5	12,370	12,230	12,857	13,124
7	13,290	12,870	14,030	13,905
10	14,680	14,470	15,530	15,045
15	16,460	16,000	18,030	16,769
20	18,000	18,460	20,530	18,149
24	19,240	21,610	22,530	19,037

출전 : 「동양나이론 노동조합 소식지」,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표 5 화학섬유사업장 여성노동자 호봉별 임금표(1990년)

단위 : 원

년	동양	태광	선경	코오롱
1	6,950	7,200	7,867	7,606
3	7,170	7,580	8,560	7,984
5	7,460	7,820	9,253	8,274
7	7,970	8,060	10,183	8,498
10	8,830	8,760	11,243	8,834

출전 : 「동양나이론 노동조합 소식지」,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위의 표를 통해 타 제조업 사업장보다 낮았던 화학섬유산업의 임금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크게 상승했지만 남성노동자의 호봉별 임금과 여성노동자의 호봉별 임금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지역에 위치한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적게는 약 60~72%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노동조합활동이 활성화되고 파업과 임금투쟁을 벌이며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다.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정액 인상이 아닌 비율 인상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11)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울산지역 7월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1987, 99쪽.

112) 태광산업 투쟁일지, 1989,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113)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223쪽.

114)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양나이론노동조합 소식지」, 1991,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액제 인상에는 반대하기도 했다. 임금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인상한다면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더 크게 오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남성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기 때문이다.<sup>115)</sup> 결국 여성과 남성은 같은 공정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받지 못 했고 지속적으로 저임금 구조에 처해지게 되었다.

화학섬유 사업장 내부의 산업재해와 안전관리는 어땠을까. 동양나이론 연신과의 와과공정에서는 적게는 500Kg, 많게는 800Kg까지 나가는 빔(Beam)을 수시로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매일 작업 전 위험예지훈련이 실시되었다.<sup>116)</sup> 와과공정 외에도 회전체를 다루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거나 실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sup>117)</sup>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신체 이상과 같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생산 현장 작업장에서는 매일 작업 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예지훈련과 교육이 실시되었고<sup>118)</sup> 안전관리조직 운영, 주기적인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되긴 했으나 사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나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았다. 실태와 피해에 대한 기본 자료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은 거의 작업자 부주의로 처리되었다.<sup>119)</sup>

1987년 6·29민주화선언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바로 울산 현대엔진,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면서 울산지역의 화학섬유 사업장에서도 민주노조 설립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 노동쟁의에서 제기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통해서도 당시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이에 대응하는 회사의 무관심한 태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태광산업 부산공장에서는 1987년 7월 23일부터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철폐, 복지시설 개선, 하기휴가일 연장 및 휴가비 지급’ 등 16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가 조업을 중단했다가<sup>120)</sup> 7월 25일 대표와 합의하여 정상 조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121)</sup>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7월 27일부터 ‘어용노조퇴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6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철야농성을 이어나갔다.<sup>122)</sup>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노동조합은 1977년부터 노동조합 결성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나 1987년까지 회사와 협력하는 어용노조였다.<sup>123)</sup> 이에 자주적으로 구성된 민주노조 추진위원회는 “우리들의 함성”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35℃가 넘는 고온과 소음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현실을 호소하고 근로자 편에서 일을 하는 민주노조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24)</sup> 민주노조 추진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민주노조 설립, 임금 25% 인상, 가족 수당 3만원 지급, 상여금 차등제 폐지, 현역과 방위임금 차등 철폐, 하기휴가 유급 처리, 퇴직금 누진제, 통근버스 증차, 시외 연결 가능한 통

115) 김○희 구술 녹취록, 2004년 10월 29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2-2.

116) 효성물산, 『효성』 통권 70호, 1986.03.25. 58~59쪽.

117)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30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2-2.

118) 선경인더스트리, 『사보 선경』 제10권 제1호, 1984.01.15., 17쪽.

119) 태광산업(주) 울산공장노보, 「산업재해 이대로 뒤야하나?」, 『큰빛』, 1987.12.30.

120) 「태광산업 종업원 천여 명 철야농성」, 『조선일보』, 1987.07.24.

121) 「기업公示」, 『매일경제』, 1987.07.25.

122) 「勞使분규급증...生産활동 위축」, 『동아일보』, 1987.07.30.

123) 태광50년사편찬위원회, 『태광50년사』, 2000, 207쪽.

124)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울산지역 7월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1987, 99~100쪽.

신방 설치, 식당 증축, 전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 지급, 장기 근속 근로자 아파트 신설 등이었다. 농성이 지속되면서 몇 번의 협상 시도가 있었으나 사측이 불응하거나 협상 내용이 관철되지 않아 농성은 8월 2일까지 이어졌고 결국 임금 12% 인상, 상여금 남녀 차등제 폐지, 현역, 실미, 방위의 일당차이 폐지, 하기휴가 2일 유급, 통근 버스 2대 증차, 전화 4대 설치, 기숙사 증축과 식사의 점진적 개선, 학자금은 하위직 우선 개선, 작업복 개선, 반장 수당 인상, 여자 일용의 대우 개선 등을 협상하였다.<sup>125)</sup> 1987년 노동쟁의를 거쳐 결성된 태광산업 울산공장 노동조합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이었으며 집행부도 새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3년 임기의 1대 노조 집행부는 남녀 임금차별과 같은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고 이것은 현장 내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는 현장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다.<sup>126)</sup>

동양나이론 역시 이른 시기부터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어용노조였다. 동양나이론 노동자들은 7월 27일부터 민주노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용노조 집행부 퇴진, 임금 30%인상, 생산장려 수당 인상, 가족수당 지급, 보너스 인상, 근속수당 인상, 현행 승급제도 폐지, 여사원의 탈의장 설치, 현장 온도 28℃ 이하 유지, 냉난방 설비 확충, 명절과 하기휴가비 지급, 숙소사원 식사 개선, 여중졸 사원의 야간 학생 증원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29일 남녀 사원 임금 12% 인상, 특별 승급제도 마련, 경조금 인상, 생산 장려수당 인상, 냉난방 설비 확충 검토, 진관 내 식당 설치, 상록관 이전 검토 등을 합의하였다. 동양나이론은 7월 투쟁에서 최초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타사업장의 임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127)</sup>

한편 태광산업은 동양나이론과 함께 울산지역에서 비교적 일찍 발생한 노사분규를 두고 회사 측에서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분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대규모 노동쟁의가 시작된 울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장치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울산에 같이 배치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분석했다. 여러 사업장이 동조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 측의 손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광산업은 울산에 설치한 방직 시설을 1993년 웅상공장으로 이전하기도 했다.<sup>128)</sup>

## 2. 울산 화학섬유공장 노동자의 생활

울산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 중 대부분의 미혼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회사 근처의 셋방을 얻어 생활했다. 당시 기숙사는 외지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 공장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숙사비가 무료였기 때문에 월세를 아낄 수 있었다. 또한 기숙사는 사감이 사생들의 일상을 관리했기 때문에 기숙사의 존재 여부는 부모가 여성노동자들의 타지 공장 취업을 허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sup>129)</sup>

125)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울산지역 7월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1987, 102~104쪽.

126) 원영미, 「어느 노동자의 경험읽기」, 『울산사학』 21, 울산대학교 사학회, 2017, 115쪽.

127)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울산지역 7월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1987, 106~111쪽.

128) 태광50년사편찬위원회, 『태광50년사』, 2000, 207~210쪽.

1970년대 후반 신문기사에 따르면 공장 안에 기숙사 시설을 갖춘 회사는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동양나이론과 주식회사 선경 두 개 회사뿐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sup>130)</sup> 태광산업과 선경합섬도 미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 노동자 거주 시설은 태광산업의 전신인 동양합섬 공장이 울산에 건설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다. 1967년 4월 태광산업의 미혼 여성노동자가 거주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거시설이 준공되었다가 1986년 3층으로 증축되어 미혼의 여성노동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남성노동자 기숙사는 1970년대 중반 별도로 신축되었다.<sup>131)</sup>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은 1974년부터 여성노동자의 60%인 4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기숙사 착공에 들어갔다.<sup>132)</sup> 완공된 기숙사는 총 3층 건물로 6평정도 되는 한 방에 4~5명의 노동자가 함께 생활했다. 남성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상록관’, 여성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진관’으로 체육관과 테니스코트 등 부대시설과 함께 위치해 있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기숙사의 생활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태광산업 부산공장 기숙사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기숙사가 노동자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광산업 부산공장에서는 종업원 4,000여 명 가운데 2,714명이 노조 결성을 위해 가입 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노동회관과 기숙사 등을 봉쇄하고 기숙사 종업원들의 외출 및 면회를 금지시킨 사건이 있었다.<sup>133)</sup> 기업 측에서 사원들의 단체 행동을 막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숙사의 규율을 이용한 사례인데 이를 통해 당시 태광산업의 기숙사 운영과 규칙이 노동 통제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나이론의 기숙사 방에서는 4~5명이 함께 생활했다. 넉넉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3조 3교대 근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동시에 한 방에 머무는 경우는 적었다.<sup>134)</sup> 그런데 교대 근무로 인해 서로의 퇴근 시간과 취침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취침 중 다른 사람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잠에서 깨기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sup>135)</sup> 기숙사 방은 편하게 숙면을 취하거나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생활’의 공간이 아닌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화학섬유공장의 기숙사가 위치한 일대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어 있어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분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공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은 어지럼증, 메스꺼움,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을 앓기 일쑤였고<sup>136)</sup> 기숙사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소음과 냄새가 심해 자유롭게 창문을 열고 생활하지 못 할 정도였다.

밤에는 특히 매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내뿜어서 창문을 못 열고 잤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 장생포에서 더 이상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면서 이전을 쫓

129) 「農村 새 風俗圖 (139) 工團사회 [36] 기숙사 愛着」, 『경향신문』, 1978.04.28.

130) 「農村 새 風俗圖 (139) 工團사회 [36] 기숙사 愛着」, 『경향신문』, 1978.04.28.

131)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산업수도 울산의 사택문화』, 2011, 224~225쪽.

132) 「東洋나이론 蔚山공장 대규모 寄宿舍 건립」, 『매일경제』, 1974.02.28.

133) 「섬유勞組 勞組결성을방해한 태광産業代表고발」, 『동아일보』, 1974.02.19. ; 「寄宿舍등 봉쇄勞組결성 방해」, 『조선일보』, 1974.02.19. ; 「泰光産業을 수사 勤勞法 위반혐의」, 『매일경제』, 1974.03.04.

134) 「工業團地 -國土改造의 現場을 解剖해 본다 ⑥ 3交代로 「統制·생활」, 『조선일보』, 1976.03.14.

135) 박○순 구술 녹취록, 울산지역사연구-노동-Ⅲ-A04-1, 2004년 8월 27일 구술.

136) 「公害訴訟에서달리는 울산工業團地」, 『경향신문』, 1971.07.02.

했던 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숙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이전)를 요구를 쪽 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방송국도 되게 많이 오고 언론도 많이 타고 서명도 받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남자기숙사는 나가고 여자기숙사는 못 나갔어요.<sup>137)</sup>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단 내 폭발, 유해가스 유출 등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까지 덮쳐 동양나이론의 기숙사 이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숙사 이전 문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측은 기숙사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 선풍기 사용, 빨래 건조기 도입 등으로 기숙사생들을 회유하고자 했다.<sup>138)</sup>

한국의 산업화 시기 전반에 걸쳐 여성노동자들이 기거했던 기숙사에는 사감과 엄격한 규율이 존재했다. 외출 횟수와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충분한 수면을 위해 소등시간도 정해져있었다. 이렇게 기숙사에서 강제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이유는 다음 날의 노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sup>139)</sup> 동양나이론 여성 기숙사에서도 이러한 엄격한 규율이 강제되었다. 외출과 외박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 미리 허가증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었고 외출은 주 2회만 허락되었다. 또한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밤 11시 이전에 귀사를 해야 했다.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통금 시간을 어기는 경우 외출은 일주일의 별 청소와 15일 외출금지가 주어졌고 3회 누적되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를 당했다. 외박은 월 2회만 가능했으며 무단 외박 1회에 같은 방 동료 모두가 함께 일주일 별 청소를 했다. 무단 외박 역시 3회 누적될 경우 강제 퇴실을 당했다. 취침시간 역시 철저히 통제받았는데 밤 11시 30분이 되면 일제 소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야근조의 경우 회사에서 더욱 철저히 취침 시간을 관리했다. 야근조는 아침 7시 30분에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10시부터 일제 취침에 들어가야만 했다.<sup>140)</sup>

여성 기숙사에서는 외출과 외박, 취침 시간에 대한 엄격한 통제뿐만 아니라 사감의 폭언이 가해지기도 했고 회사 내 교육 참여에 강제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41)</sup> 또한 남성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사생들이 여성 기숙사 건물 쪽으로 넘어오거나 망원경으로 방을 엿보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sup>142)</sup> 기숙사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들은 개인의 자유, 인격적 대우,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생존과 직결된 건강까지 위협받아야 했다.

기숙사 외에 공장 노동자를 유치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야간학교였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취업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2년 전부터 야간학교가 설립되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곳엔 왜 없는지 모르겠다는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 기사로 미루어보아 울산에는 1970년대 후반까지 여성노동자들이 다닐 수 있는 야간학교나

137)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8월 30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2.

138) 연신과 조합원, 『진관이전 투쟁속보』 제1호, 1995.07.28.,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139)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6, 619-620쪽.

140) 「工業団地 -國土改造의 現場을 解剖해 본다 ⑥ 3交代로 「統制·생활」, 『조선일보』, 1976.03.14.

141)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142)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특별학급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43)</sup>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울산에도 노동자가 다닐 수 있는 야간 고등학교<sup>144)</sup>와 방송통신고등학교<sup>145)</sup>가 마련되었다. 야간 고등학교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산업체 특별학급의 형태로 설치되어 노동자들이 낮 근무를 마친 후 오후부터 고등학교 과정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야간 고등학교 외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마련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일 특정 시간에 방송되는 강의를 청취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직접 등교해 수업을 받았다. 타 지역보다 늦게 마련되긴 했으나 울산에도 공장 노동과 병행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과정이 생기면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야간 고등학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었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기엔 부족했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개인의 힘만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또한 학교의 출석 수업에 참여하거나 정확한 시간에 방송 강의를 청취하는 것은 3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생산 현장은 인원 부족 또는 부족한 생산량 달성 등으로 잔업이 잦은 편이었다. 그런데 결근을 하거나 잔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동료가 대신 추가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마지못해 겨우 시간을 채우는 사원들도 있었다.<sup>146)</sup> 이러한 조건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개인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고<sup>147)</sup>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저학력, 저임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역할을 했다.

화학섬유 생산 공정의 특성에 따라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배치되는 업무에는 위계가 있었다. 선공정은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고 기술집약적인 반면 후공정으로 갈수록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노동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후공정일수록 비교적 학력이나 기술과 거리가 먼 노동력이 배치되었다. 그런데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같은 후공정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남성들은 주로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맡았고 여성노동자들은 선별, 포장, 또는 보다 육체적 피로도가 높고 단순한 업무에 배치되었다.<sup>148)</sup> 같은 후공정에서도 다시 ‘선공정’과 ‘후공정’이 나누어졌고 ‘선공정’은 남성노동자가, ‘후공정’은 여성노동자가 담당하는 것이다. 업무의 차이는 관계의 위계로도 이어졌고 여성노동자에게는 남성노동자들의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이 가해지기도 했다.<sup>149)</sup>

울산지역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공장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가 노동집약적인 섬유, 식품, 전자조립 부문 등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발달하면서 경공업 부문의 여성 취업자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위주로 변모해가면서 기술훈련

143) 「工業団地 陽地와陰地の 新風俗圖 풍속도 蔚山工團」, 『동아일보』, 1978.03.30.

144) 선경기업의 계열 회사 중 하나인 (주)선경 울산공장에서는 여성 사원들이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주)선경 울산공장에서는 1984년 4회 졸업식까지 총 4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선경인더스트리, 『사보 선경』 제10권 제3호, 1984.3.15. ; 선경인더스트리, 『선경』 제10호 제4권, 1984.4.15.)

145)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학성고등학교는 1983년부터 통신고등학교를 병설 운영하였다. (효성물산, 『효성』 통권 105호, 1989.02.15.)

146) 효성물산, 『효성』 통권 29호, 1982.10.21. 28쪽. ; 효성물산, 『효성』 통권 96호, 1988.05.15. 52쪽. ; 효성물산, 『효성』 통권 105호, 1989.02.15. 33쪽.

147) 효성물산, 『효성』 통권 105호, 1989.02.15.

148)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49) 선경인더스트리, 『사보 선경』, 제10권 제2호, 1984.02.15., 38-39쪽.

의 기회는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었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전통적 ‘여성업종’ 분야에만 한정되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과 같은 분야에 종사해도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적인 임금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sup>150)</sup>

울산지역 화학섬유사업장에 종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역시 결혼 전까지만 유효한 일시적인 노동력으로 인식되었다.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회사 내에서 기능이나 어학 등의 교육 기회나 승급 심사 및 혜택도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sup>151)</sup> 효성그룹 사보에 실린 한 칼럼에서는 ‘여사원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이라는 생각이 관례화된 것에는 직장을 단순히 결혼 전 잠시 거쳐 가는 장소로 생각하는 여사원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가정을 원만히 돌보는 것에 무리가 있고 가정은 여인의 포근함으로 고된 일에 지친 남성에게 에너지 재충전을 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가정에서 살림하는 편을 바라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52)</sup> 직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여사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여사원은 결혼을 하면 퇴직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자 역시 대부분 공장에서의 노동 경험을 “결혼 밀친 장만 기간”으로 여기며 결혼을 위해 월급을 쪼개 저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sup>153)</sup> 여성의 노동력은 일시적인 노동력이라는 인식은 당시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사회 통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 우리 효성, 고합, 태광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작업복 입고 여 신분증 있다고. 작업복 입고 이제 술 먹으러 가면 큰 자량은 아니지만, 저쪽 신경통까지도 외상이 됐거든. ... 신경통까지. 신경통까지도. 외상이 됐어. 출입증 보고. 그때는 이제 괜찮았어요.”<sup>154)</sup>

“일 자체가... 음... 일 자체가 어렵다 라기보다는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왜 택시를 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순이라는 이름... 이름으로 짹 짹거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것처럼 ... 우리들에 대한 인식이 그 시기까지도 뭐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어... 예를 들어 뭐... 뭐 같이 잘 수도 있는 놀 수도 있는 관계... 이런 거로 생각하는 인식들도 많았고. 잠깐... 잠깐 잠깐의 뭐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그...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평생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입사하고 한 오년이 안 돼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으니까.”<sup>155)</sup>

또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받는 인정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성노동자는 작업복을 입고 외부로 나가거나 술집에서 사원증을 보여주면 공장이 위치한 남구 일

150) 장미현, 「산업화 시기 여성노동의 다변화와 여성노동운동의 성장」, 『산업화와 여성노동 100년의 성찰과 미래』, 한국여성연구소, 2019, 109~111쪽.

151) 신경인더스트리, 『사보 선정』, 제10권 제2호, 1984.02.15., 38~39쪽.

152) 효성물산, 『효성』 통권 94호, 1988.03.15., 36쪽.

153) 「工業団地 -國土改造의 現場을 解剖해 본다 ⑥ 3交代로 「統制·생활」, 『조선일보』, 1976.03.14. ; 「農村 농촌風俗圖 (139) 工團사회 [36] 기숙사 愛着」, 『경향신문』, 1978.04.28.

154)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55)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대에서는 외상 취식이 가능했을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공장 노동을 하는 여성은 택시를 타도 ‘공순이’ 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쉬운 여성’ 혹은 ‘잠깐 놀 수도 있는 관계’ 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노동자가 노동을 지속해나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sup>156)</sup>

공장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기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남성노동자에게 화학섬유사업장은 울산지역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였다. 당시 대규모 노동자를 채용했던 공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외에도 삼양사, 울산정유공장, 대한유화 등이 있었다. 대한유화나 삼양사는 임금 수준이 타 사업장보다 높아 입사 희망자가 많은 회사였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일이 고되 ‘달구지 회사’ 등으로 불리며 입사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sup>157)</sup> 입사 난이도와 노동 강도의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취업처가 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지역에서 화학섬유공장은 남성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여겨졌다.

반면 여성노동자에게 공장 노동은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울산의 산업구조가 남성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 가면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섬유공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도 가난한 농촌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공장으로 인식되었다.<sup>158)</sup> 때문에 여성노동자 스스로에게도 화학섬유공장은 아주 잠깐 일했던 곳으로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 내 혹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키워나가기 어려웠던 지역의 분위기도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이 사회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YH사건을 비롯해 1970년대 민주노조 결성 운동은 청계피복, 원풍모방, 구로공단 등 여성노동자가 주요 노동력이었던 경공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1970년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강력한 민주노조가 출현하고 노동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기숙사 생활과 소모임 활동을 통해 다져나간 노동자 의식이 있었다.<sup>159)</sup> 그러나 울산의 화학섬유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 중에는 고향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공장 노동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본가에서 통근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거나 공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휴일에는 본가에 돌아가곤 했다. 공장 노동이 끝나고 본가에 돌아간 이들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거나 다른 가족들의 돌봄 노동을 이어가야만 했다.<sup>160)</sup> 도시의 산업 구조가 중화학 공업으로 변화하면서 농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영세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자각이나 의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고 새로운 환경이나 문화에 노출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에서조차 자치회나 서클 활동, 교육활동이 운영되었지만 대부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세운 정신교육, 성교육, 취미교실과 같은 교양강좌 중심이었고 전 사원에 비해 기숙사 수용인원이 적었기 때문에<sup>161)</sup>

156)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III-A04-1.

157)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58) 백승아, 「1980년대 울산지역 여성운동 : 지역의 공업화·민주화과정에서 여성주체 형성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4-2, 2023, 20~24쪽.

159) 정찬일, 『삼순이-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책과함께, 2019, 429쪽.

160)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사보 토포론 소식』 통권 12권 제6호, 1988.6, 60~61쪽.



기속사에서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이나 연대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나 학생운동가의 부재도 울산지역 화학섬유공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비판의식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학생운동가들은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동교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노동운동과 소모임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 운동가들은 종교단체의 실무자로서 동일방직, 원풍모방, 반도상사 등의 노동자 교육과 민주노조지원활동의 중심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sup>162)</sup> 1980년 중반에 이르면 학생 운동가들과 노동자 활동가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민주노조 활동을 이어나갔고 조합원들은 교육, 조직활동, 단체행동을 경험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갔다.<sup>163)</sup>

울산지역에서는 1982년에 이르러서야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량이 결집한 형제교회가 만들어졌고 1983년 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울산NCC), 1984년에 이르러서야 울산기독교청년협의회(울산EYC)가 조직되었다.<sup>164)</sup> 울산의 종합 대학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늦게 설립되었다. 1970년 설립된 울산공과대학은 1985년에 이르러서야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가 일찍부터 성장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력을 속이고 현장에 취업해 소모임을 조직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던 학생 출신 노동자들의 유입 역시 1980년대 후반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sup>165)</sup>

화학섬유의 생산 공정에 따라 위계화된 업무,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노동에 대한 인식, 비판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지역적 상황이 중첩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처지의 여성노동자들은 스스로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 입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자신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sup>166)</sup> 그 결과 울산지역의 화학섬유공장에서는 타 도시의 경공업 사업장에서 보이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970~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존재 자체마저도 울산지역 산업화의 역사에서 잊혀졌다.

#### IV. 맺음말

한국의 화학섬유산업은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화학섬유산업이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공장 건설과 대량 생산 설비가 마련되었다. 화학섬유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화학섬유공장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대

161)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사보 토프론 소식』 통권 9권 제2호, 1985.2, 35쪽.

162)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63쪽.

163)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77~185쪽.

164) 울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울산민주화운동사』, 선인, 2023, 28~29쪽.

165)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166) 태광산업(주) 울산공장노조, 「여사원의 소리」, 『큰빛』, 1987.11.30.,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부분 외국 차관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화학섬유공장의 건설과 증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화학섬유류에 부과되던 물품세 조정, 나일론의 원료 카프로락탐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수출실적 책정, 자기보상제도와 같은 제도 등을 마련하여 국내 화학섬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갔다.

국내 화학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 화학섬유인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 생산 공장이 울산에 건설되었다. 울산은 정부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항만, 용수, 교통 등 간접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었고 넓은 부지가 있어 향후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기에도 적합했다. 정부는 울산공장 건설에 개입하면서 민간 기업이 정부의 계획에 맞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강제했고 민간 기업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갔다. 울산의 화학섬유산업은 정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이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중합과 방사와 같이 기계를 조작해 화합물을 처리하는 선공정에는 주로 대졸 남성 사원이 배치되었지만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후공정에는 중졸 또는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었다. 후공정에 배치된 노동자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승진과 이직에 한계가 있었다.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은 휴일 없이 3조 3교대로 일했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는 서서 일해야 했고 매우 뜨거운 열기와 심한 소음, 강한 화학 약품 냄새를 견디며 일해야 했기 때문에 손목과 허리 통증, 난청과 같은 질환을 앓기도 했다. 1987년 이전까지 울산지역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노동 쟁의를 겪으며 임금의 수준이 올랐지만 정액이 아닌 비율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70% 정도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의 생활공간 중 하나인 기숙사에서는 편하게 숙면을 취하거나 개인 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웠고 공단 내 공해와 안전사고로 인해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았다. 또한 여성 기숙사에는 엄격한 생활규율이 가해졌고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타 도시보다 늦게 노동자들이 다닐 수 있는 야간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마련되었지만 3교대 근무를 하는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화학섬유 생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배치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었다. 같은 공정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보다 더 노동집약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배정되었고 중심 공정에서 소외되었다. 젠더에 따라 공장 노동 경험에 대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인식도 달랐다. 지역사회 내에서 화학섬유공장에 다니는 남성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공순이’, ‘쉬운 여성’으로 인식되었다. 여성노동자들 스스로도 화학섬유공장에서의 노동 경험을 ‘가난했던 시절 아주 잠깐 다녔던 곳’으로 기억하거나 지인 혹은 가족에게까지 숨기고 싶은 과거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 보조적 노동력이라는 사회 인식과 공장 노동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여성노동자들의 자기 인식은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퇴근 후 다시 본가로 돌아가 농사일을 돕거나 돌봄 노동을 이어나가야 했던 개인의 형편, 도시산업선교회나 학생운동가가 부재했던 지역적 상황도 여성노동자들이 계급의식과 비판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시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상황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존재와 위치는 더욱 축소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산업화의 역사에서 배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울산지역에 건설된 화학섬유공장인 태광산업, 동양나이론, 선경합섬의 공장 건설 과정을 정리하고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조건 및 생활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간 한국의 산업화 역사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화학섬유공장 노동자들의 경험을 복원하고 화학섬유 생산 노동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공장이 만들어졌지만 산업에 따라서 지역의 노동자들은 위계화 되었음을 밝히고 같은 화학섬유공장 내에서도 공정과 젠더에 따라 임금, 대우, 이직과 승진의 기회에 차이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화학섬유 생산 공정이 갖는 특성,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인식, 지역적 상황이 중첩된 구조는 여성노동자가 지역의 산업화 역사에서 잊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1990년대 이후부터 울산지역의 화학섬유공장에서는 새로운 품목이 생산되고 하청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는 격렬한 정리해고반대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학섬유노동자들의 경험을 연속적으로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존재가 지워진 데에는 앞에서 살펴본 요인 외에도 울산지역의 여성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후의 경험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고소득의 생산직 남성노동자와 결혼하고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울산지역 여성노동자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문제는 추후의 과제로 지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신문·잡지 및 자료

#### 1) 신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국일보』

#### 2) 잡지자료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사보 토프론 소식』

선경인더스트리, 『사보 선경』

한국화섬협회, 『화섬』

효성물산, 『효성』

#### 3) 대한민국 정부 관련 자료

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 『종합경제재건계획(안)해설』

대한민국정부, 『관보』

대한민국정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

대한민국정부, 『第3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1972~1976』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자본재도입에대한지불보증(효성물산주식회사)(11회)」, 국가기록  
원 관리번호 BA0084496, 1967

#### 4) 노동조합 관련 자료

「동양나이론주식회사 취업규칙」,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양나이론노동조합 소식지」, 1991,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연신과 조합원, 『진관이전 투쟁속보』,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태광산업 노동조합 자료, 1988,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태광산업 투쟁일지, 1989,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태광산업(주) 울산공장노조, 『큰빛』, 울산노동역사관1987 소장

#### 5) 통계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울산시, 『울산시 통계연보』

## 2. 단행본 및 보고서

- 김승석,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6
-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10년사』, 1976
- 동양나이론주식회사, 『동양나이론 20년사』, 1993
- 동양나이론주식회사, 『동양나이론 30년사』, 1996
- 선경그룹 홍보실, 『선경 40년사』, 1993
- 울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울산민주화운동사』, 선인, 2023
-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산업수도 울산의 사택문화』, 2011
-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문제상담소, 『울산지역 7월노동자대중투쟁 자료집』, 1987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2014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의 성장과정과 지역적 특성』, 1981
- 이종구 외,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4
-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6
- 정찬일, 『삼순이-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책과함께, 2019
- 조홍제, 『나의 回顧』, 주식회사 효성, 2000
- 코오롱, 『코오롱 20년사』, 1977
- 태광50년사편찬위원회, 『태광50년사』, 2000
- 한국여성연구소, 『산업화와 여성노동 100년의 성찰과 미래』, 2019
- 한국외환은행조사부, 『화학섬유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1971
- 한국화섬협회, 『한국의 화섬산업 -어제 오늘과 내일-』, 한국화섬협회, 1993
- 한국화섬협회, 『한국화섬협회 50년사 : 1963-2013』, 2013
- 한삼진, 『울산공업센터 반세기』, 울산광역시 남구, 2012

## 3. 학위논문

- 김상숙, 「지역과 젠더통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 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사회학 박사논문, 2007
- 원영미, 「1980년대 울산 대공장 노동자 연구 :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철, 「韓國化學纖維産業의 展開過程(1961~1979) : 産業政策의 一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장미현, 「1950년대 후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4. 학술논문

김상숙,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생활경험 - 1970~1980년대 대구 체직공장의 '기사' - '직수' 팀 노동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19, 한국사회사학회, 2018

김세림, 「1950년대 공주 유구지역의 피난민 정착촌 형성과 직조업」, 『學林』 42, 연세사학연구회, 2018

박현정, 「1950-1960년대 강화 여성의 삶과 노동경험 : 강화지역 직물생산노동자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1·1, 한국구술사학회, 2020

백승아, 「1980년대 울산지역 여성운동 : 지역의 공업화·민주화과정에서 여성주체 형성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4·2, 2023

서문석, 「美軍政期 綿紡織産業의 發展」, 『經營史學』 97, 한국경영사학회, 2021

서문석, 「수출의 확대와 면방직업의 성장」,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사, 2018

원영미, 「어느 노동자의 경험 읽기」, 『울산사학』 21, 울산대학교 사학회, 2017

이상철, 「한국에 있어서 화학섬유의 수입대체와 정부의 역할 (1965-1972)」, 『經濟史學』 25, 경제사학회, 1998

이상철, 「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화학섬유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經濟發展研究』 4(1), 한국경제발전학회, 1998

이정은, 「1950년대 나일론 유행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자본의 대응」, 『역사와 담론』 100, 호서사학회, 2021

이주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이희영,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 광주 전남방직 구술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2·1, 한국산업노동학회, 2008

장미경,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61, 2004

조현민·임상훈, 「한국 면방직업 내부 노동시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經營史學』 90, 한국경영사학회, 2019

홍석률,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 『역사비평』 112, 역사비평사, 2015

#### 5. 구술녹취록

김○석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김○희 구술 녹취록, 2004년 10월 29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Ⅲ-A02-2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27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Ⅲ-A04-1

박○순 구술 녹취록, 2004년 08월 30일 구술, 울산지역사연구-노동-Ⅲ-A04-2

정○준 구술 녹취록, 2023년 09월 15일 구술

## 6. 웹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섬유정보센터, 섬유용어사전 <http://www.textopia.or.kr/contents/main.do>

## ABSTRACT

### **A study on the working conditions and everyday life of workers in Ulsan chemical textile industry in 1970s and 1980s**

LEE, Kyeong-seo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Culture

Th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In this study, I summarized the construction processes of major chemical fiber industry factories in the Ulsan region, such as Taekwang Industry, Tongyang Nylon, and Sunkyong Synthetic, and examines the specific labor conditions and everyday life of chemical fiber factory workers. This research aims to restore the experiences of chemical fiber industry workers that have not been well-documented in the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chemical fiber production labor.

Since the liber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South Korea in synthetic fibers due to their durability and versatility compared to natural fibers. However, at that time, South Korea did not have the infrastructure to produce chemical fibers domestically, so it relied on imports. Given the capital-intensive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nature of the chemical fiber industry,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was necessary to promote import substitution.

Ulsan, which was designated as a industrial center in 1962, ha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chemical fiber factories. With the presence of large-scale petrochemical complexes and Ulsan oil refineries, various social overhead capital could be utilized, and it was suitable for diversifying future business ventures. The government played a role not only i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companies, factory construction approvals, and foreign capital import approvals but also in influencing the composition of corporate management and mediating conflicts between companies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that aligned with its plans. Private companies, while accepting the government's position, also sought ways to maximize their profits through share acquisition and new business proposals.

The production process of chemical fibers can be divided into the primary process, which involves chemical reactions to create fibers, and the secondary process, which involves processing and sorting fibers for specific purposes before packaging. The primary process required a certain level of engineering knowledge and was primarily staffed with a male worker who has graduated from college. On the other hand, the secondary process, which required less specialized knowledge



or skills, employed workers who has not graduated from college and does not possess specialized technical skills. Among secondary processes, more labor-intensive and straightforward tasks were assigned to female workers with lower wages. Workers in the secondary process had limited opportunities to switch to higher-paying jobs that required learning technical skills and faced challenges in promotions.

The standard working condition for workers in each process was a 3-shift, 3-rotation schedule. Efficiency in production was paramount, so workers had to labor continuously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holidays. The ongoing factory work exacerbated physical and mental fatigue among the worker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even to participate in scheduled training or lectures. Additionally, workers had to endure high temperatures, noise, and chemical odors in the production process field. Until the late 1980s, workers in chemical fiber factories received wages lower than the na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average, with a significant wag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Complaints and anger regarding these poor working conditions accumulated over time and were eventually expressed through labor disputes in 1987.

Unmarried workers in Ulsan's chemical fiber factories, residing in dormitories, faced difficulties in getting proper rest and maintaining a stable life. This was due to the varying commuting times of residents sharing the same room and the health and safety threats posed by smoke, dust from nearby factories, and industrial accident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Particularly in female dormitories, strict rules were enforced to control labor, and privacy invasion issues arose from incidents of male workers entering female dormitories and peeping into rooms.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workers, evening high schools and broadcasting correspondence high schools for workers were established nationwide from the mid-1970s. However, in Ulsan, these options were limited. Evening high schools with company support had limited spots, and the broadcasting correspondence high school required workers to study on their own. Moreover, workers on a 3-shift rotation schedule found it challenging to attend classes or listen to scheduled lectures.

In the chemical fiber factory, tasks were assigned hierarchically according to gender. Female workers were mainly given physically demanding and less complex tasks within the same process as male workers. This division of tasks also created hierarchical relationships, with female workers having to tolerate condescending language and behavior from their male colleagues in the workplace.

There were differences in social or self-perception of labor based on gender. For male workers in chemical fiber factories, wearing work uniforms was not considered embarrassing.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am-gu, where the factories were located, showing work uniforms and identification cards could be used to receive credit, reflecting some level of recognition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female

workers' labor in chemical fiber factories was often seen as supplementary and was stigmatized by traditional gender roles. Many female workers themselves considered their factory work as something to be ashamed of and tried to hide it as part of their past.

In a region where the urban industrial structure was transitioning from primary industries to a male-dominated heavy chemical industry, chemical fiber factories in Ulsan provided ampl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However, their work was often perceived as secondary labor. Furthermore, the societal perception of being temporary, auxiliary labor, and the self-perception that factory labor itself was demeaning, made it challenging for female workers to develop their own class consciousness. Additionall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ity further reduced the presence and status of female workers in Ulsan's chemical fiber factories. As a result, the organized actions of female workers, which were seen in other urban industrial sites, did not occur in Ulsan, and the existence of female workers in the 1970s and 1980s was forgotten in the history of Ulsan's industrialization.

Key words: Chemical fiber industry, Industrialization, Taekwang Industry, Tongyang Nylon, Sunkyong Synthetic, Ulsan, Chemical fiber factory workers, Female laborer, Everyday life of workers
---